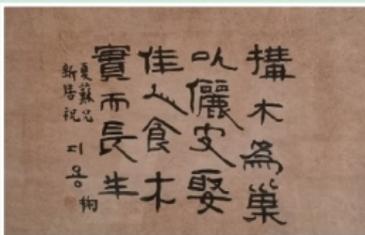




“옛이야기 지줄대는 옥주골에 머무노니”



금관문화훈장 서훈 정지용



정지용 친필 원고

10회 일본 지용제 개최... 교토·오사카 일원에서 정지용 문학포럼 및 정지용 한글작문 콘테스트 열려

이번 행사의 방문단을 24명으로 꾸렸습니다. '10회 일본 지용제'가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교토, 오사카 일원에서 개최 됩니다.

이 행사는 옥천문화원(원장 유정현)이 주최하고 동지사대학 코리아 연구센터와 동지사대학 한국유학생회가 주관하며 옥천군, 오사카 한국문화원의 후원으로 열립니다.

주요 행사 일정은 동지사대학을 공식 방문하고 정지용·윤동주 시비를 참배한 후 정지용 문학포럼 및 5회 정지용 한글작문 콘테스트 등을 갖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 세부 일정을 보면 방문 첫째 날인 6일에는 일본 동지사대학 국제과를 방문하여 옥천과 동지사대학 간 향후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동지사대 교정에 있는 정지용 및 윤동주 시비를 참배 합니다.

다음 날인 7일엔 문학평론가인 홍용희 경희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인 "오래된 새로움의 미의식과 감

각"이란 주제로 정지용 문학포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일에는 5회 정지용 한글작문 콘테스트에 한국어를 전공하는 일본인 학생과 한국 동포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날 시상식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 등 총 9명이 수상합니다. 한글작문 콘테스트가 열리는 동안 시낭송, K-POP댄스, 한국무용 공연도 선보입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방문단 전원이 참석하는 참여자 낭송회와 행사 평가보고회를 갖고 일본 지용제 행사가 마무리 됩니다.

한편, 옥천문화원장은 "정지용 시인의 시문학에 대한 국제적 위상 증진과 국제화로 외부 콘텐츠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문학인으로 포럼 및 한글작문 콘테스트를 통한 한·일 양국 간, 더 나아가 동북아 국제 간의 민간문화교류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구읍 문화유적 곳곳에 새긴 발자국



◀옥영수생가 옥천여중 학생들과 찰칵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6월 13일, 충북 청소년 내고장 문화유적 순례대행진이 있던 날이다. 이 행사는 충북문화원연합회 주최, 옥천문화원과 옥천학연연구소 주관,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아침 9시, 옥천문화원에서 옥천여중 학생들과 만나 하루를 시작하였다. 류재철 옥천학연연구소장님의 일정을 들으며 향토전시관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가는 내내 친구와 얘기하며 밝은 에너지를 뽐어내는 학생들, 나까지 환해지는 기분이다.

9시 30분, 향토전시관에 도착하니 전순표 향토전시관장의 재미난 옥천이야기가 펼쳐졌다. 전시관 앞에 있는 뒤주, 보은의 삼년산성을 쌓을 때 사용했던 돌, 청석교를 보고 설명을 들으며 전시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시관에서 고대시대(석기~청동기)의 옥천 유물을 보니 옥천에 어떤 역사가 숨어있는지 더욱 궁금해진다. 전시관을 걸으며 동·서양의 유물과 석곽묘, 옥천의 허준인 이경화

의 동인혈도(의학서)를 살펴보고, 때마침 보은군 학생들이 합류하여 함께 이층으로 올랐다.

이층에서는 옥천의 독립운동가와 위인을 만났다. 특히 중봉 조현과 우암 송시열의 위대함은 이항, 이외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 청마리 탐신제 모형, 100년 전 도시락통, 나막신 등 옥천의 근현대 시기의 유물이 가득했고 관장의 명월암 낭송을 들으며 전시관 관람이 끝났다.

이후 장계관광지를 걷는데, 시원한 바람을 쐬고 기분이 좋은지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고 장난을 친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기운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다음은 전통문화체험관이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300여명의 충북 내 중·고등학생들이 모였다. 11시, 강전섭 충북문화원연합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정현 옥천문화원장의 환영사, 이숙경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옥천여중 박지현 학생의 문화유산현

장 낭독과 사진 촬영으로 오전 행사가 끝났다.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 옥영수 생가를 방문했다. 이곳은 '교동집'이라 불리던 옥천의 명문가 집안으로 연못, 석빙고, 차고지 등이 있는 전형적인 상류 주택이다. 보은, 충주, 옥천 학생들이 도처에 무리를 짓고 다니며, 생가의 99간 가옥에 대한 설명, 친구와 나누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찬찬히 둘러본다.

오후 1시 20분, 옥주사마소로 향했다. 이곳은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사마소(옥천, 괴산, 경주) 중 한 곳이다. 왜 옥주인가 하면, 과거 고려(충선왕5)~조선(태종13) 100년(1313~1413) 동안 옥천을 옥주라고 불렀기 때문이고, 사마소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 중 소과에 합격한 생원, 진사들이 모여 공부하고 정치를 논하던 곳이다. 이곳은 충북유형문화재 157호로 지정되었고, 우암 송시열이 현판을 쓰고 백촌 김문기가 공부했던 뜻깊은 곳이다. 더운 날씨에도 해설에 열심히 귀기울이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가득하다.

마지막은 정지용 문학관과 생가이다. 그의 삶과 일대기를 알아보고 직접 향수 시낭송을 하며, 잠시 시인이 되어본다. 그리고 생가에서 그의 생활을 밀접하게 느껴며 이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옥천을 방문한 학생들의 가슴에 옥천이 역사와 정취가 가득한, 기쁨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남기를 바란다.



문화교실 「어울림미술반」

어울림미술반[서양화]의 모태는 신미술인회[크레파스]로, 첫 발걸음을 떼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어울림미술반[서양화]으로 문화원 문화교실의 일원으로서 어언 25여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명의 강사님을 거쳐 지금은 유창숙 강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15명의 회원들이 열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에는 3명이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25여년을 어울림미술반 회원으로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중간중간 회원들의 교체가 있었지만 어울림반으로 꾸준히 맥을 이어오며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이 미술에 입문해서 수많은 공모전에 출품하여 상을 많이 받았으며, 전문가거나 강사로도 여러 명 배출되었습니다. 옥천미술협회 회원 및 그 외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으며 문화원 문화교실에서 주부들의 여가 활용으로만 그치지 않고, 자

기들의 재능을 개발하여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어울림미술반 회장으로서 뿌듯합니다. 그러므로 미술은 일시적인 수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문화교실에서 공부하여 본인의 실력을 발휘해 펼친 전시회도 벌써 19회째가 되었습니다.

옥천 지용제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그림 그리기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사회 단체의 협력 단체로서 20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울림미술반은 그림에 관심과 재능 있는 분들의 공부방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봉사하는 진정한 문화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원과 관계 기관에 어울림반 회원 일동은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미적 감각을 두드리고 펼쳐봅시다.



옥천문화원 홈페이지
www.okcc.or.kr

옥천문화원의 소식은 이곳에서!
저희가 걸어온 길, 소개, 행사, 일정과
문화교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옥천의 인물, 마을과 문화재 그리고
문화원에서 발간한 서적을 구경하세요
무엇보다 올해 문화원 사업 예정 일정을
보시려면 행사안내->1년 행사 참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용제 홈페이지와 문화원 유튜브도
연결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정문화재

용암사 마애불

- 주소/옥천읍 삼청2길 400
- 지정번호/충북유형문화재 제17호
- 수량/1점
- 지정일/1976.12.21

가람비의 여운 속에 늘어진 봄 내음 향긋한 평
온의 산 속으로 밤이 찾아온다. 모든 것이 가벼린
노송들의 사이로 온갖 새들이 날고 사바세계의 백
팔번뇌를 잊게 해주는 용암사.

신라24대 진흥왕 2년 의신조사에 의해 창건된 용
암사는 옥천읍 삼청리 삼청2길 400에 위치해 있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데 스
님네의 구전에 의하면 속리산 범주사보다 12년 앞
서 창건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천여년의 법보를 지켜온 가람 곳곳엔 이끼
낀 기와 조각들이 옛 영화를 오늘에까지 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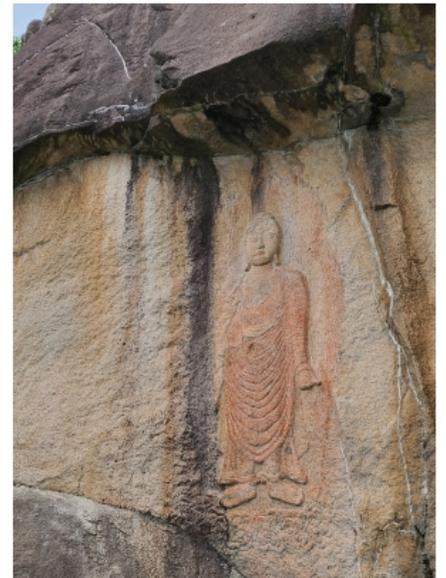
대웅전 뒤 중턱길로 20m정도 오르니 바위에 새
겨진 지방유형문화재 17호로 지정(1976. 12. 23)
된 용암사 마애여래입상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준다.

크기는 297cm(밑의 연화좌까지)의 거상으로 머
리는 소발(흰 머리칼)이며 위에 도톰한 육계가 마
련되어 있다. 양눈과 코, 입 등은 잘 정돈되어 있

고 얼굴은 약간 가름하고 원만한 모습을 띠고 있
으며, 과격적인 미소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인 모습
을 보여준다. 양귀는 긴편은 아니나 목에 삼도가
돌려져 있고, 위엄이 넘치고 있다.

양쪽 어깨는 신라 불상답게 당당하고 법의는 편
단우견(오른쪽 어깨가 드러나도록 입는 것)으로써
가사의 형태가 뚜렷하고 사실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손의 모습은 왼손을 밑으로 내려 법의를 펼친
듯하고 오른손은 그대로 내리고 있다. 허리 아래의
법의는 그대로 흘러 큼직한 활모습의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가사는 짧으며 양쪽 발이 노출되었고 양
쪽으로 벌리고 있다. 발 아래는 마애불의 특징인 화
사한 연꽃좌가 조각되어 있어 부처님의 모습은 신
라시대 연꽃 조각을 닮아 시대적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불상은 감실형으로 바위를 파서 도드라지게
새긴 얇은 부조 마애불입상으로 붉은 바위색이 인
상적이다. 조각 방법은 양각으로 되어 있으며 조각
솜씨를 보아 신라시대인 9C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바위틈을 타고 흐르는 석간수, 청정한 풀잎 모두
가 아름다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언제나 맑은 미
소를 자아낼 것을 믿으며...

중앙인쇄사

허만호

회의 자료, 각종 인쇄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0-1
043-731-4942
010-5465-4942
hmh4942@hanmail.net



(주)삼동건설

김수영

조립식 건축자재 생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농공길 39
043-733-4225
010-5467-3945
k730530@hanmail.net



훈민정음학원

김묘순

초·중·고등학부 입시전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4길 5
043-731-7196
010-3356-7196





려 있습니다. 또한 후율당 안에는 1621년 광해군 13년에 판각한 향의신편 125장, 유림시판 10장, 그리고 선조대왕이 내렸다는 조서 1장이 보관되어 있으나 칠백의총이 건립되면서 금산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파란 잔디로 깔아놓은 중봉 조현성지. 울창한 소나무가 400년 넘게 중봉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눈을 감지마라 합니다. 중봉묘소에서 참배를 하고 앞산을 바라봅니다. 조국사랑뿐입니다. 아래로 표충사가 보이네요. 매년 중봉조현선생추모제를 지냅니다. 그리곤 주변을 둘러 봅니다. 깔끔한 것이 지상낙원 같습니다. 또한 조용한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이자 역사공부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같기도 하네요. 잔디밭에 풍당 빠지고 싶답니다.

제사를 지내던 영모재를 둘러보고 중봉조현 신도비를 지나 독락정으로 향했습니다. "참 멋지네요. 며칠 여기서 지내보고 싶네요." 라는 말이 귀를 스쳐간다. '아는 사람뻘집 뵈'에도 들러 시원한 음료, 그리고 맛있는 빵도 구입했습니다. 정말 구수하면서 담백한 맛이네요.

힐링을 위해 독락정을 갑니다. 이 곳은 1607년 선조 40년에 절충장군중추부사를 지낸 주몽득이 건립한 정자인데, 뒤에는 증암절벽 바위산이 병풍처럼 솟아있습니다. 앞에는 금강이 굽이쳐 흐르다 앞에서 방향을 바꾸어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앞에 보이는 산들은 용이 춤을 추듯 유유자적 승천하는 기세를 가지고 있어, 많은 선비들이 자연경관에 도취되어 즐겨 모여 지내던 곳입니다. 건물 정면에는 1668년 당시 군수였던 심후의 <독락정>이란 액자가 걸려 있고, 대청에는 입재 송근수 선생의 율시기문이 각자되어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마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폐교가 된 청마초등학교. 바로 옆에 청마탐신제당(충북민속자료 제1호)을 찾았습니다. 소원을 빌고 건강을 빌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행복여행을 하길 기원했답니다.



“ 온마을 배움터 교원 연수 옥천 한바퀴 다함께 돌아 ”

옥천 學 함추름 Trip 3



오늘은 세번째로 옥천학연구소가 초등학교 샘들과 옥천의 구석구석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샘을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여 한바퀴 도는 '옥천마을여행'입니다.



처음 우리가 만난 분은 조현 선생입니다. 중봉이 후율당을 짓고 후학을 가르쳤던 때, 일본군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지요. 10만 양병설도 무시당하고... 이때 조현선생은 의(義)를 강조하게 됩니다. 10리 너머 가산사 기허당 영규대사와 뜻을 모으게 됩니다.



이 후율당은 1588년 선조 21년 중봉 조현 선생께서 율곡 이이를 사모하여 자기가 율곡의 후학을 자처하고 자기의 호까지 후율이라고 하였으며,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안내면 용촌리 밤터 마을에 서당을 짓고 이름을 '후율당'이라 했답니다. 1592년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중봉선생은 후율당에서 의병을 일으켜 1,700여명을 규합하여 영규대사의 승병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후율당의 상량문에는 "後稟靜庵孝子 退溪學一脈 昭昭在石潭 任辰亂義兵多出是堂"이라 쓰여 있어 이곳에서 많은 의병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 본 후율당이 헐어져 없어진 것을 선생의 제자들과 후손들이 다시 지었다가 1864년 현 위치로 이전하였고, 1977년 완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 건물은 목조 기와집으로 정면 삼칸 측면 한칸의 팔작지붕이며 앞에는 소슬삼문에 돌로 담장을 하였고, 삼문 바로 안에는 중봉선생의 충신문과 그를 대신해서 죽으려 했던 아들 완기의 효자정문이 삼칸 맞배 지붕 안에 나란히 편액이 걸